

이율 수천% ... 피해자 인신매매 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뽑기로

1만명 투입 대대적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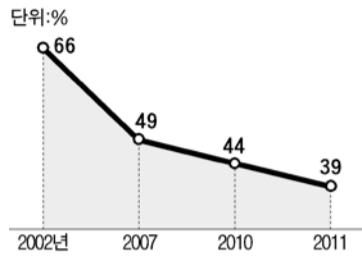
정부가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신고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경찰청 등에 설치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조치에는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금감원 등에서 1만15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 컨설팅과 신용 회복 지원, 법률상담 등을 해줄 방침이다. 불법으로 고금리를 챙긴 업체의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 사금융은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면서 "연 이자율이 수백~수천%에 달해 서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를 납치해 인신매매·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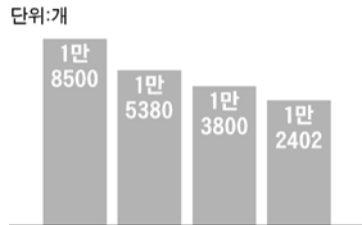
불법 사금융의 폐해는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한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학생 딸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당했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적 장애인 부부에게 35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갠지 못하자 임신 5개월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사례도 있었다.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이 아니라 예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류 재정위기와 지난해 물가 불안 등으로 저신용자·청년·서민 등의 금융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는 56.6%로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율 낮아지고



등록 대부업체도 줄었지만



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신고는 급증

단위: 건	2009	2010	2011
전체 상담건수	6114	1만3528	2만5535
불법 고금리	1057	748	1001
불법채권추심	972	1136	2174
대출사기	463	794	2357
보이스피싱 피해	6720	5455	8244

제2금융권까지 대출 죄자 사채 이용자 3년 새 2배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했던 2009년(52.9%)보다 늘어났다. 그런데 9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에 늘어난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까지 조이면서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 입장에선 대부업체나 사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러다 보니 대부업체 거래자는 2008년 9월 131만 명에서 지난해 6월 247만 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대출잔액도 5조6000억

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최고 연 39%, 미등록 사채업자는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총리가 말했다 사채를 끌어온 사람 중에는 수백~수천%의 이자를 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연 200%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는 "정부가 최고 이자율을 너무 옥죄는 바람에 불법 사채가 더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대부중개업체는 2007년 말 1만8500개에서 올해 2월 1만2402개로 6000여 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02년 연 66%였던 최고이자율을 지난해 연 39%까지 낮추면서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 사채로 돌아서는 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기준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조달금리·대손비용 등)가 연 36.7%고, 소형업체는 연 40%가 훌쩍 넘는다고"며 "연 39%를 받아선 영익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대부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건 어렵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줄이려면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를 낮춰 주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이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발표했던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바퀴달림론 등 서민우대 금융 지원 공급 확대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정도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면 서민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하·조현숙 기자
odinelec@joongang.co.kr



세계은행 차기 총재에 내정된 김용 닥터머스대 총장이 15일 페루 리마에 있는 문화센터를 방문해 현지 여성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16일 수락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와의 연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리마 AP=연합뉴스)

김용의 세계은행, 개도국 끌어안는다

한국계 총재 선출 ... 과제는

'짐 용 김(Jim Yong Kim, 한국 이름 김용)이 세계은행 지도자로 선출됐다. 미국은 세계은행 안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오후(현지시간) 김용(52) 미국 닥터머스대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선출 소식을 전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총재 선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계은행이 1945년 설립된 이래 66년 동안 총재 경선이 치러진 건 처음이다. 그동안엔 미국이 지명하면 만장일치 지지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지명한 김 총장에 맞서 응고지 오펜조 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호세 안토니오 오카포 전 콜롬비아 재무장관이 도전장을 던졌다. 오펜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총재 선출이 미국의 황포로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곤 오펜조 이웨알라 장관과 단일화도 이뤘다. 단일화 진영의 논리는 간단했다. 세계

은행 총재 지명권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미국의 전횡을 이번에는 '손을 보자'는 것이었다.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대륙 등 신흥개발국들의 도전은 거셴다. 영국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지와 이코노미스트는 이들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며 김 총장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의학

첫 경선서 이사 25명 표 갈려 66년 미국 주도권 관행 타격 반대파 달랠 정책 불가피

박사와 인류학박사 학위를 지닌 김 총장의 경력에 금융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거사는 실패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25명의 이사진 중 이곳저곳에서 표가 나왔다"고 표현할 만큼 표는 갈렸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경쟁자였던 오펜조 이웨알라 장관은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총재 선출 절차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다음 총재는 잘못된 방식으로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 총재 선출 직후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졌다"며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에 감사한다"는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총재의 임기(5년)는 7월 1일 공식 시작된다. 로버트 졸릭 총재의 뒤를 이은 김 총재의 세계은행은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신흥개발국들의 불만을 다독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신임 김 총재는 서울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김 총재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 없던 한국이 지금 이뤄낸 성과를 보라"며 "이런 경험을 살려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pmaster@joongang.co.kr

임원 및 신입 / 경력사원 공개채용

Total packaging solution company를 지향하는 삼릉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직무내용	구분	근무지
임원	생산, 영업, 관리	경력	부천, 안산, 천안
인사총무	인사관리, 채용 / 교육 총무, 노무 전반	신입/경력	부천, 천안
경영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진척도 관리 기타 기획업무 전반	신입/경력	부천
연구개발	도로용 수지 설계, 합성 및 검사 제품기술영업	신입/경력	부천
영업	해외영업/기술영업 영어, 일어, 중국어 능통자 우대	신입/경력	부천
재무관리	회계/자금관리	신입/경력	부천
생산관리	플라스틱 압출/성형 관련 기계/설비/금형 기술자	경력	천안
구매자재	원자재 구매 자재관리(재고, 입고)	신입/경력	안산, 천안
품질관리	세균검사/ 공정품질 검사	신입/경력	안산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출기간: 2012년 4월 27일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E-mail(cms@samryong.com)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2 운운빌딩 6층 삼릉물산(주) 인사관리위원회
- 공통사항:
 - 이력서 상단에 지원부문 명시
 - 병역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음 것
 - 관련업계 장기 경력자 우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를 취소합니다.
 - 모집부문에 따라 관계회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삼릉물산(주) 이생테크노팩(주) SR케미칼(주)

미국 교환학생 선발

美 국무성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미국국무성에서 주관하고 CSIE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50년 전통의 유학 프로그램

- 모집대상:
 - 공립 - 97년 7월 31일생 ~ 94년 3월 1일생 (중3~고2)
 - 사립 - 01년 7월 31일생 ~ 94년 3월 1일생 (초5~고2)
- 자격조건:
 - SLP 50점 이상, 최근 3년간 전과목 평균 '우' 이상

프로그램특징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기유학 프로그램
- 미국 Ivy League 및 상위권 대학에 높은 진학율을 보이는 동부 명문사립 포함, 미국 전역 학교에 배정 가능
- 상위 3% 블루리본 School 및 IB, AP, Honor 과목 많은 학교 배정 가능
- 미국 보스턴을 비롯 명문대 진학을 높은 지역 배정 가능
- 저학년의 최고명문 Boarding School 진학을 위한 학업 관리
- 장기유학생, 졸업 후 최소 미국 명문 주립대 이상 입학
- 2012년 교환학생 특선!! 본사 직영유학대비용어 수업1개월 무료 수강

공립 교환 모집 마감 임박!!!
 ※ 성적표를 FAX로 넣어주시면 합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설명회 일정】
 ● 일 시: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 공립 / 오후 1시 - 사립
 ● 장 소: ㈜이름다온교육 본원 강남구 논현동 86번지 금강빌딩 2층
 ● 오시는 길: 학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예약문의: 1577-5058
www.bmeedu.com

E-2미국비이민비자

미국 사업비자 설명회

◇ 약 30만불 투자로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 획득
 ◇ 미국 소액 투자(E-2) VISA 교육 사업 창업의 기회!!! (약 3억원)

시 교육 사업 비자의 특징

- 안전한 교육 사업 / 연간 25만불 이상 매출 보장
- 1년간 본사 경영 지원 및 기술과 노하우 전수
- 자녀의 미국 10대 명문 공립 고등학교 유학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투자 기회
- 미국 현지 정착 즉시 운영 가능한 사업체
- 총 소요 기간 6개월의 단기간 안에 미국 비자 획득 및 출국

【설명회 일정】
 ● 주 관: America International Co.
 ● 일 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강남구 논현동 86번지 금강빌딩 2층
 ● 오시는 길: 학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예약문의 (02)3444-4777

경기 파주 DMZ 토지매각 공고

- 한국자산신탁 자금관리 업무수행 -

◆ 매각 토지 개요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지목	전, 답
매각가	3.3㎡ 당 29,000원 ~ 33,000원
접수방법	청약 선착순 수의계약
청약계약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우리은행, 1005-501-954373

경기새마을영농조합에서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 토지를 특별 매각한다.
 매각 토지는 민통선과 DMZ 등을 대상으로 한 "접경 지역지원 특별법" 등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 지역 중 '통일한국'의 중추를 담당할 파주에 위치하며,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의 사용과 행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뜰 때마다 화제가 되던 지역인데다 9년만의 허가지역 해제 등의 이유로 멀지 않은 미래의 가치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 이어서 실제 투자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계약 시 한국자산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시까지 매매대금을 보관하며, 필지당 단독 등기를 원칙으로 매각한다.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청약금100만원을 입금하고 선착순으로 필지를 배정 받아 계약 유무와 잔금 일을 지정하며,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농업회사법인 경기새마을 | 02)564-0209